

여대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핵심자기평가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해성*, 김주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ore Self-Evaluation on Body Dissatisfa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

Hye-Seong Jeon*, Ju-Hyun Kim**

Dept. of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Kyung-Hee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들이 갖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핵심자기평가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신체불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대생들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를 서울 1곳, 경기 1곳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로 선정하여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41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321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답변이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하여 31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핵심자기평가를 독립 변인으로, 신체불만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여대생의 신체불만족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핵심자기평가로 확인되었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신체불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여대생들의 신체불만족을 낮추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자기핵심평가의 증진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여성, 대학생, 부적응적 완벽주의, 핵심자기평가, 신체불만족

Abstract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ore self-evaluation on body dissatisfa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6 to May, 2016 and 315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ore self-evaluation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body dissatisfaction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core self-evaluation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body dissatisfaction, but maladaptive perfectionism didn't have the effectiveness to the body dissatisfa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 In conclusion, to reduce body dissatisfacti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positive view regarding core self-evaluation should be increased

Key Words : Female, College student, Maladaptive Perfectionism, Core Self-Evaluation, Body Dissatisfaction

Received 24 August 2016, Revised 18 October 2016
Accepted 20 November 2016, Published 28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Ju Hyun Kim
(Dept. of Social Welfare, Kyung-Hee Cyber University)
Email: jhkim417@khc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문화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신체적 매력을 갖추도록 요구받는 특성 때문에[1] 자기 신체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도 남성에 비해 더욱 크다[2]. 특히, 여대생들은 발달주기 상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예비사회인으로서 사회적 요구에 더 민감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풍조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아 높은 신체불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여대생이 높은 수준의 신체불만족을 느끼는 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제기될 수 있는데, 먼저는 발달특성상 여대생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성과 신체적 기능 및 매력이 가장 고조되는 성인초기라는 발달적 시기가 맞물리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나치게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풍조를 들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 성형 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를 보여주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이 외모 중시의 한국사회의 풍조가 여대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저해서, 상당수 여대생들이 자신의 신체불만족을 호소하며 건강의 위협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외모관리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여대생은 신체에 대한 태도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연예인과 같은 외모와 지나치게 마른 몸을 우상시하는 외모가치를 내면화하여 상대적으로 자기신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성형중독 및 극단적 다이어트와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세계 22개 국가의 대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가장 마른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체중을 낮추기 위한 행위 및 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사회에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더라도, 신체불만족을 형성하는데 각 여대생 개인이 갖는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이 크다는 관점을 제기한다. 즉, 각 여대생 개인이 갖는 심리적 특성에 의해 자신의 신체불만족이 높은 수준에서 지각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5, 6]. 선행 연구에서는, 신체불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기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주위의 요구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부적응적 완

벽주의 성향’을 의미하고, 자기평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평가’라는 심리적 요인이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정하고 아무 실수나 결점 없이 과업을 수행해 가려는 성격적 경향성을 의미한다[7].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개인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가 성취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에게 큰 부담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타인과 사회의 평가, 비난에 강박적인 압박을 느끼고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높다[8, 9]. 그러나 무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부응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 있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더 큰 불만족의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완벽주의와 신체불만족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부정적 완벽주의가 신체불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고[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여[11] 부정적 완벽주의가 여대생의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대생의 경우, 사회진출을 앞둔 준비 예비사회인으로서 사회적 압력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낼 경우 결과적으로 신체불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체불만족의 예측요인으로 제기되는 또 다른 변인이 여대생 개인의 ‘자기에 대한 의식 및 평가’라는 심리적 특성이다. 상당수 선행연구는 단편적인 자기이해 측면의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서 연구되어 왔다. 그런데 성인초기의 여대생이 성취해야 할 자기 정체성 확립 및 주체적인 자기인식 등의 발달과업을 고려할 때,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자기인식 및 평가에 대한 개념 적용이 요구된다.

자기의식 및 자기평가가 신체불만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자신에 대한 낮은 인식 및 평가가 개인의 외모 및 신체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자기의식은 사적자기의식과 공적자기의식으로 분류된다. 사적자기의식이란 개인의 사적인 내적 영역에 주의와 비중을 두는 것이고, 공적자기의식은 자신을 사회적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상형성, 자기표현 및 예의 등에 대한 내용이다. 자아가 자신의 내부의 어떤 측면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가에 대한 정

의로 볼 수 있다[1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자기의식과 신체불만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공격의식, 즉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개인의 외모 및 신체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제시되었다[13, 14]. 이와 같은 기존의 자기의식 개념보다, 좀 더 여대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자기인식 및 평가에 대한 개념이 '핵심자기평가'이다. 핵심자기평가는 이전에 주목받았던 단일 차원의 개인 특성과는 달리, 한 개인에 대해 좀 더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설명을 담고 있다[15]. 핵심자기평가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더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변 환경을 지각, 인식하여,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능력, 역량, 가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핵심자기평가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정서적 안정이라는 개별적인 특성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6]. 자아존중감은 핵심자기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으로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 또는 가치판단이다[17]. 자기효능감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평가이다[18, 19].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평가에 대한 개념에 가깝다. 자기통제는 개인이 당면한 환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역량,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정서적 안정은 신경과민성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부정적인 정보나 감정을 접했을 때 얼마나 유연하고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획득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핵심자기평가는 심리학, 인문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에 개념적 기반을 두고 있다[20]. 이에 개인의 광범위하고 잠재적인 자기인식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상과 같이, 최근 우리사회는 외모가 능력이라고까지 평가받는 외모중시 풍토로 인해, 여대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기 쉽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불만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특성인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자기평가가 예측변인으로써 설명력이 높다는 연구결과 등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심리적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 두 개의 변인이 신체불만족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를 제시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생물학적, 발달적 특성

상 높은 신체불만을 경험할 수 있는 여대생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핵심자기평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좀 더 적절한 개입 방법을 선택하고 상담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들에게 나타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핵심자기평가가 개인의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서울 소재의 A대학, 경기도 소재의 B대학에서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 2, 3, 4학년들 중 총 412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실시방법 및 유의사항을 배포자들에게 직접 설명하였으며, 각자 소속된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설문지 작성은 대학생들이 직접 표기하는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회수하여 321부(78%)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6부를 제외한 총 315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측정도구

2.2.1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21]이 번안한 것이다. FMPS는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2개의 적응적 완벽주의 척도를 제외하고 4개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하위척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 높은 부모기대, 실수에 대한 부모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등을 포함한다. 5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78이었다

2.2.2 핵심자기평가

여대생의 핵심자기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2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항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내재적 통제, 정서적안정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주어진 상황에 더 잘 적응하고 자신감 및 효능감을 느끼며 자신의 역량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으로 질문한 문항은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핵심자기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82 였다.

2.2.3 신체불만족

신체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2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신체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각 신체 부분에 대한 평균적인 만족도를 측정한다. 1점부터 5점까지의 리커트식 척도이며, 모든 문항에 대해 역채점하므로 점수가 높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신체불만족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가 .78이었다

2.2.4 인구사회학적 변인

조사응답자의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성별, 학년, 응답자가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을 설정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신체불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모형에 설정된 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고자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투입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여대생의 부정응적 완벽주의 및 핵심자기평가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사항

각 학년별로는 2학년이 110명(34.9%)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이 107명(34.0%), 4학년이 59명(18.7%), 3학년이 39명(12.4%)이었다. 학업성과를 묻는 설문에서는 `중간` 라는 응답이 242명(76.8%), `하위` 라는 응답이 39명(12.4%), `상위` 라는 응답이 34명(10.8%)으로 나타났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rade	1	107	34.0%
	2	110	34.9%
	3	39	12.4%
	4	59	18.7%
education performance	high	34	10.8%
	middle	242	76.8%
	low	39	12.4%

3.2 주요변수의 특성

3.2.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여대생의 부정응적 완벽주의는 평균 2.89(SD:.46), 핵심자기평가는 평균 3.29(SD:.52), 신체불만족은 평균 2.86(SD:.71)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core self-evaluation and body dissatisfaction

variable	sample size	mean	SD	minimum	maximum
maladaptive perfectionism	315	2.89	.46	1.69	4.54
core self-evaluation	315	3.29	.52	2.08	4.58
body dissatisfaction	315	2.86	.71	1.00	4.70

3.2.2 상관관계 분석

부정응적 완벽주의 및 핵심자기평가 간에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P<.01$), 핵심자기평가와 신체불만족($P<.01$) 간에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maladaptive perfectionism	core self-evaluation	body dissatisfaction
maladaptive perfectionism	1		
core self-evaluation	-.298**	1	
body dissatisfaction	.066	-.262**	1

3.2.3 신체불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의 회귀분석

독립변인에 여대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핵심자기평가를, 종속변인에 신체불만족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대생의 신체불만족에 핵심자기평가가 부적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p<.01). 즉,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신체불만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여대생의 신체불만족에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body dissatisfaction

variable	B	SE	β	t-value
constant	4.127	.544		7.59
maladaptive perfectionism	-.028	.114	-.019	-.244
core self-evaluation	-.366	.103	-.268	-3.536**
R	.263			
R ²	.069			
Adjusted R ²	.059			
F	6.642			

**p<0.01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외모지상주의 현상과 신체적 매력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는 현실에 주목하여 여대생의 심리적 기제로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핵심자기평가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불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작성된 설문지 315부를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신체 불만족은 평균 2.86점이었으며,

이는 같은 척도를 사용한 대학생 대상 연구(M: 3.01, SD:.68)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었으나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2.89점(SD:.64)으로, 유사한 연구의 2.74점을 약간 상회하였다. 핵심 자기 평가는 평균 3.29점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기존 연구[24]의 3.50점(SD:.50)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핵심자기평가의 정도가 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높은 실직률로 인해 대학생들은 생활 안정성과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자존감, 자기효능감도 낮아지는 추세인 것을 반영하는 예라고 보겠다.

둘째, 여대생의 핵심자기평가가 높을수록 신체불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경우,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자신에 대한 통제력, 정서적인 안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핵심자기평가의 하위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존감과 신체상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2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결국 여대생이 타인의 평가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신체불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26, 27]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신체불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선행결과와 일치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슨 일이든지 최고여야 한다는 생각하고 남들보다 높은 기준을 세우려고 하며 실수에 대한 염려하고 수행한 것을 되풀이해서 보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러한 성향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여대생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스런 요소가 있을 때 오히려 이를 보완하려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된 보완적 행동들이 신체불만족의 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신체불만족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다이어트의 열풍과 성형기술의 발달로 신체 불만족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고 여대생들이 이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접근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체불만족의 보완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8,29]. 따라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오히려 신체적인 조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여대생 집단에 대한 직접적, 예방적 개입으로서, 핵심자기평가의 구성요소인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정서적안정감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신체불만족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여대생의 경우, 자기핵심평가의 요소별로 강화시키는 다각적인 치료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신체불만족의 상태가 섭식장애나 심리적 장애와 같은 병적증상으로 표면화된 후에 사후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사전에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의 주 피해자인 위험군들을 대상으로 자기의식 및 평가에 초점을 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에 신체불만족이 높은 여대생들이 선택하는 성형, 다이어트와 같은 대처행위가 종종 심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를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여대생들이 좀 더 적절한 대처를 유도하는 행동주의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심리적 기제를 변화시키는 개별적, 치료적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셋째, 신체불만족이 높고 극심한 다이어트에 시달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교내에서 운영하는 대학생활상담센터에 소속된 전문상담인력이 여성주의적 접근과 양성평등의 관점에 기반하도록 재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문상담가의 양성평등적 접근은 여대생이 외모만을 중시하는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나 신체적인 조건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앞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신체불만족에 대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이나 그 하위개념인 적응적 완벽주의가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에 있어서는 2010년까지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신체불만족 간에는 부적인 영향관계를 보고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형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신체불만족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마련되고 쉽게 활용하게 되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오히려 신체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 신체불만족과 부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심리적 기제로서의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신체불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개인의 대처 방식과 같은 실행력을 매개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표집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을 2개 대학의 여대생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모든 여대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체불만족 관련된 요인으로서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핵심자기평가와의 관련성을 최초로 연구한 점과 여대생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신체불만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다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REFERENCES

- [1] Stice, E., Schupack-Neuberg, E., Sharw, H. E., R. I. Relation of media exposure to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n examination of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pp.836-841. 1994.
- [2] Feingold, A., & Mazzella,. Gender difference of the personality,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pp.80-100. 1998.
- [3] Wan-suk Gim & Jungsik Kim. Body-Related Values and Body-Esteem in East Asian Women: A Cross-National Study Focusing o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4. pp. 407-418. 2014..
- [4] Wardle, J. Haase.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22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Vol.30, No.4, 2006.
- [5] S, J. Han, An Effect of Personality Type on Cognitive, Behavioral Investment Disposition, *Journal*

-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7. pp. 127-133. 2016
- [6] K. Y. Ji, J. Y. Han, A Study on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Four-year Collegi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Level : The case of C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7. pp.33-41. 2016
- [7] Hewitt, P. L., & G. L.,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pp.456-470. 1991.
- [8] Slmaey, R. B., Johnson, D. P., & Ashby, J. S., Perfectionism: Its measurement and career releva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pp.279-297 1995.
- [9] M. E. Kim, K. Lim, Analysis of Factors for Learning Satisfaction Based on Gender in Online Graduate University Setting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4. pp. 33-42., 2015
- [10] Berge, P., Thompson, J.K., Obremski Brandon, K., & Coovert, M. The influence model of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A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vestigation testing the mediation role of appearance comparis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 pp.1007-1020. 2002.
- [11] J. H. Yoon, The relationship of body-dissatisfaction,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perfectionism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12]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pp.522-527. 1975.
- [13] M. R. Jeon , J. S. Roh,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elf-consciousness of College Majors in Dance on the Body Image, Self-efficacy and Dance Performance Anxiety.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 21. No.1. pp.1-20, 2010.
- [14] E. J. Son, Body image and Self-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level of Symptoms. Ewha Woman's University, 1995.
- [15] Judge, T. A., Locke, E. A., & Durham, C. C., The dispositional causes of job satisfaction: A core evaluations approach.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9, pp151-188, 1997.
- [16] Judge, T. A., Erez, A., & Bono, J., The Power of being positive: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self-concept and job performance. Human Performance, 11, pp.167-187, 1998.
- [17] C. H. Lee, H. R. Son, H. Y. Jang, Effects of Self-esteem, Aggression and Violence Recogni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7. pp.29-36. 2016
- [18] H. Y. Jung,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7. pp. 259-268. 2016.
- [19] S. H. Kim, M. J. Kim,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4. pp. 407-418. 2014
- [20] P.S. Yang, S. B. Choi, Impact on the innovation actions at Innovative environment and the core self-evalu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re self-evaluation, Korean Association of Industrial Business Administration, No.12, pp13-26, 2011.
- [21] Jin-won Hyeon 'perfectionism' tendencies and evaluation impact on task performance, Yonsei University. 1992.
- [22] D. H. Lee, J. K. Ta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roactive Personality and Core Self-evaluation on Career Success: Mediating Roles of Career Planing,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1. No.1. pp83-103, 2008.
- [23] Sun-myung Cho,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 Yonsei University. 1999.
- [24] Park, Kyung Hwan,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Self-differentiations on the Core Self-evaluations in the Employe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General, Vol.30. No.1, 2011.
- [25] Park, Woo Chul, The Effects of Adolescent' Body

- Mass Index, Self-esteem, Family Criticism and Media Exposure on Their Body Imag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9.
- [26] Kim, Kyung He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handicapping Mediated by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27] Davis, C., Claridge, G., & Fox, J., Not Just a pretty fac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perfectionism in the risk for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7, pp67-73. 2000.
- [28] Cho, Sang-Hee. Lee Su-Young, A Effect of the Squat Convergence Exercise Among Knee Joint Angle on Quadricpes Strength in the Patients With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7 No.2, pp. 43-52, 2016.
- [29] Park, Eun-Hee, Kim, Hye-Su, Kim, Ja-Ok, "The Effect of Convergence Action Learning techniques in Simulation Cla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41-248, 2015.

전 혜 성(Jeon, Hye Seong)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가족 상담, 아동청소년 적응, 디지털교육 등
- E-Mail : hsjeon@dankook.ac.kr

김 주 현(Kim, Ju Hyun)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관심분야 : 가족복지 및 상담, 아동 복지실천, 가정폭력상담 등
- E-Mail : jhkim417@khcu.ac.kr